

어문연구 4권 1994년 2월

D. H. Lawrence의 자아 추구  
- (D)Ursula Brangwen의 자아 -

박 정 길\*

Jeong-Gil Park.(1994). A Study on the pursuit of D.H.Lawrence's Self: Ursula Brangwen in The Rainbow. *Language & Literature Research*, 4, 21~48.

In this essay, the writer is much concerned with a general survey of Ursula, the last of the Brangwens that Lawrence deals with. Ursula is not only the main protagonist of "The Rainbow", but also a representative woman of the "*Lawrentian-self*". Ursula is of Lawrence's own generation, growing up in his world, with many aspirations and much of his own sensitivity accorded to her.

She meets various problems and struggles to achieve her sense as well as her mind that leads into the "*Unknown*": a passion for something she only knows, through the young man, whose name is Anton Skrebensky, the son of her grandmother's friend. She falls in a romantic love affair with him. Once the wedding arrangements are made between them, however, Ursula knows she cannot go on and breaks away from him.

In addition, she experiences many different kinds of affairs: Cossethay and her childhood with her father; the Marsh and the little church school near the Marsh, and her grandmother and her uncle; the high school at Nottingham and the time with Winifred Inger; Maggie and Maggie's brother; then college and her friend, Dorothy Russell. etc..

In every phase, we can see that Ursula is so different. And she suffers from various failed-relationships and is ready to build her life anew on the rainbow which symbolises for her promise of hope for the future. By the time the novel ends, Ursula becomes aware of herself that there must be a new world.

In conclusion, Ursula, a *purposive woman self* of D. H. Lawrence is left "*Women in Love*", the novel which follows, to show her in a more honest and more lasting relationship.

I

Lawrence에게 있어서 Ursula는 자기를 열어가는 "길-path-이요 방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향-direction”<sup>1)</sup>과도 같은 존재이다. 넓게는 소설 *The Rainbow*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연대기상으로는 3대를 대표하는 이 여인은 여러가지로 매우 색다른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거듭해 가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로서 선대가 살았던 전통사회와는 달리 그女가 처한 상황이 현대의 산업사회라는 점에서, 그 女에게서 발견되는 소설적 상황은 전통사회와는 사뭇 다른 Identity의 노출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흔히 '*Lawrentian Self*'의 화신이라고 불리어 지는 이 여인을 일러 Carol Dix는 Lawrence가 이 여인을 통해서 독립심이 강하고 매우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a fully independent-minded and very passionate young woman-.임을 보여주하고자 했다고 믿고 있으며 *Lawrence* 자신도 전통사회와 현대의 Meeting-point에 위치하고 있는 그女를 일러 이런 말로 그女를 규정하고 있다.

She knew that soon she would want to become a self-responsible person..An all-containing will in her for complete independence, complete social independence, complete independence from any personal authority, kept her dullishly at her studies... she knew that she had always her price of ransom-her femaleness... There was the mysterious man's world to be adventured upon, the world of daily work and duty, and existence as a working member of the community... She wanted to make her conquest also of this man's world.<sup>2)</sup>  
(R.P.334)

*Ursula*는 지적(知的)인 여성이지만 누구못지 않게 생명력을 추구하는 여인이다. 그女는 사회적 자아-a social individual-와 유리된 개인적 자아-individual self-를 자기 자신의 Identity에 대한 핵으로 생각한다.

이 여인은 어머니 *Anna*의 굶힐줄 모르는 강직한 기질은 물론 아버지 *Will*의 종교적 신심-religious sense-까지 다 함께 이어 받았다. 그리고

1. Carol Dix. D.H.Lawrence And Women. London, Macmillan, 1980.P.37

2. D.H.Lawrence. The Rainbow. The Penguin Books, 1987. Chapter XII. Shame. P.334 이하 R.P.로 page만 기록함.

그들의 조상중 어느 누구 보다도 더 복잡한 성격적 특성을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Ursula의 핏속에는 *Brangwen*家の 피와 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폴란드-polish blood-계의 피가 섞여있는 것이다. 자신이 가져야 할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자신의 실체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데도 관심을 가지며, 사랑에 대해서도 남다른 열정을 지닌 이 자유 분방한 여인은 *Brangwen*家の 여인들이 "beyond"라는 표현으로 동경해 마지않던 미지의 세계를 향해 신식의 교육을 받게되고 사회적 상황에 부딪치면서 대단한 성취욕과 호기심, 그리고 강인한 도전 의식으로 전통사회에서는 금기로 알려졌던 남성의 세계로 뛰어든다.

이러한 여인으로서의 *Ursula*가 있기까지에는 아버지 *Will*이 있었다. 아버지 *Will*과 딸 *Ursula*의 열정적 사랑은 아버지 *Will*에게는 *Anna-Ursula*의 어머니이며 *Will*의 아내-에게서 받은 그의 좌절과 심리적 정서적 불만과 부족감을 일거에 해소케 해주는 방편이 되게 되었고, *Anna*때문에 매사에 결정력이 부족하고 방황해야 했던 *Will*의 정서가 마침내는 자신감에 차 있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남편으로서, 그리고 생활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기약할 수 있는 국면전환의 발전적 계기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할때 *Lawrence*가 설정한 father-child간의 사랑의 관계는<sup>3)</sup> *Will*자신에게는 아내와의 어두운 종속적 대결관계에서 해방되는 유인책이 되고 딸 *Ursula*에게는 그女로 하여금 아버지 *Will*의 보호아래 강직한 성품-violent will-을 지닌 소녀로 성장해 나가는 motive가 되게했다 할 수 있다.

She asserted herself only. There was now nothing in the world but her own self...She came to believe in the outward malevolence that was against her..that even her adored father was part of this malevolence. And very early she learned to harden her soul in resistance and denial of all that was outside her, harden herself upon her own being.(R.P.224)

그女(*Ursula*)는 어머니의 생활 태도를 거부했다. 다산-Fecundity-이

3. See Fantasia of the Unconscious. 1986. PP.118-122

라는 Rubens의 그림을 보고 어머니의 다산에 의한 풍요의 충족을 배격하고 어머니에게 반항하며 정신적인 것과 고귀한 것을 갈망했다.<sup>4)</sup>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버지에게도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에 방해를 주는 압력의 일부로 생각하고 자기자신에 대해서도 영혼을 경화시켜 가면서 외부의 상황에 저항했다: 방금 심어놓은 감자씨 위를 밟은 자국을 보고 노한 Will에게서 Ursula는 '영혼을 찢는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아예 외면해 버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자신을 가두어 버림으로서, 그리고 그 女가 9번째의 자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자신의 기억을 영혼으로 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마는 이 같은 저항의식은 자신의 혈적 각성 못지않게 매우 어린 나이인 7세도 되기 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Anthony Beal은 Ursula를 Lawrence를 자신의 시대가 산출한 인물이며 어느 정도까지는 Lawrence의 개인적인 경험을 대표하고 있다<sup>5)</sup>고 주장한다. 그러기에 Ursula를 "Lawrentian-self"의 화신이라고 일컬었을 것이다. 그리고 Ursula의 할아버지-Tom Brangwen-의 청춘이 농장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그 女의 아버지의 인생과 정열은 아내와의 투쟁과 대립, 그리고 Craftman, Artist, Educator로서의 열정과 religious man으로서의 신심에 있었다고 볼수 있다.

Ursula 자신의 인생도 처음에는 학생-pupil/student-으로, 나중에는 선생님이로,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 그리고 그들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한 광범한 교육 기회를 통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변화와 맞서게 된다. 사춘기-Adolescence-에서 성인-Adulthood-으로 진행되는 보호받아야 할 성장의 발달단계에서 안정된 정서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이끌려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루기 힘들고 자기 중심주의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女의 깊은 내면에는 Lawrence의 확신-Lawrentian cocksureness<sup>6)</sup>이 깔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Lawrence

4. 'When she saw, later, a Rubens picture with storms of naked banies, and found this was called "Fecundity", she shuddered and the word became abhorrent to her..as a child she was against her mother...she craved for some spirituality and statelines.' (R,P.264)
5. Anthony Beal. D.H.Lawrence. Oliver and Boyd, Edinburgh and London. 1964. P.35.
6. R.P.Draper. D.H.Lawrence. London Macmillan. 1976. P.70.

의 이같은 확신이 *Ursula*라는 인물의 성격을 규정하는 "Core 혹은 Shell"<sup>7)</sup>의 양면적 논의의 방향이 되며 심리적 투쟁의 균형을 가늠하는 중핵적 요소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Ursula*의 등장은 Chapter six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그의 성장은 계몽을 전제로하는 발전의 계속이다: 여기에는 10代の 호기심과 충동, 그리고 방황과 좌절이 있고, 20代에 와서는 미루어 왔던 10代의 고통과 구 유산을 벗어 던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자아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자-을 반추하는 참으로 영원한 자신만의 자아를 찾아나서는 또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도 *Ursula*는 여전히 매우 흥미있는 인물로 남아있게 된다.

이같은 따라서 또하나의 소망을 위해 그 女의 정신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애쓴 미지의 것에대한 그 女의 동경에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Glover Smith의 *The Rainbow*(1971)의 *Ursula* 부분을 광범위하게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 II

*Ursula*가 아버지 *Will*로부터 종교적 신심을 이어받았다는 것이 이미 지적되었다. 사실 *Ursula*에게 있어서 종교는 하나의 Mysticism이라는 세계이다. 그리고 *Ursula*의 종교에 대한 정열은 아버지 *Will*의 종교에 대한 열정과 는 사뭇 다른데가 있다. 가령 *Will*에게 있어서 성당은 "the sign of heaven"(R,P.200)이요 하늘높이 날고있는 정령 "the spirit"(Ibid 200)이었다.

그래서 그가 성당-Lincoln Cathedral-에 도착했을 때의 심경은 신전에 도달한 순례자의 충만한 열망과 같은 절대에 닿아있는 비정적 열정-Impersonal passion-과 같은 것이라면 *Ursula*의 그것은 예수를 향해 자신의 온갖 사랑이 집중된 개인적 감정-Personal emotion-으로, 정신적-spirituality-이고도 감각적인-sensuality-감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Ursula*의 이와 같은 eligious mysticism은 *Ursula* 자신에게 다가온 하나의 변화이다. Religious mysticism으로 인한 *Ursula*의 변민은 그러므로

7. Howe, M. Beede. The art of D.H Lawrence. Athens, Ohio. 1977. P.47

*Lawrence*의 소설의 흐름으로 볼때 그女에게 예고된 어떤 변화의 시발이다. 자기사상의 Core 對 Shell간의 의지의 충돌과 같은 것이다. 이 "의지의 충돌은 평화스러운 시간과 교차한다. 극렬한 투쟁 다음에는 언제나 소원해지는 순간이 오며 서로 서먹서먹한 순간의 다음에는 화해의 시간이 따르고 다음에는 다시 기쁜 사랑의 시간이 찾아온다-times of separateness, times of reconciliation, times of reunion<sup>8)</sup>."- 유전의 세월은 자연과 더불어 변화하지 않은채 굳어져 있던 바로 거기에 이번에는 자연도 변하고 인생도 자연과 함께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Ursula*에게 도래한 또 하나의 세계-another world-는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인생의 투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새로운 경험을 겪어야 한다. 세대가 교차될때 마다 시작되고 있다"<sup>9)</sup>는 느낌이 새로와지는 그같은 변화를 위한 조짐인 것이다.

소녀-girlhood-에서 부터 처녀-womanhood-로 성장해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있는 인식이 필요했다. 그래서 자기가 가야할 방향이 어디이며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골똘이 생각하는 무거운 책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것이다.

As Ursula passed from girlhood towards womanhood, gradually the cloud of self - responsibility gathered upon her. She became aware of herself, that she was a separate entity in the midst of an unseparated obscurity, that she must go some- where, she must become something. And she was afraid, troubled. Why, oh why must one grow up, why must one inherit this heavy, numbing responsibility of living an undiscovered life? Out of nothingness and the undifferentiated mass, to make something of herself! But what? In the obscurity and pathlessness to take a direction! But whither? How take even one step? And yet, how stand still? This was torment indeed, to inherit the responsibility of one's own life. (R.P.283)

8. Anthony Beal. P.32.

9. Anthony Beal. P.31.

자신에게 부여된 生의 책임을 열어가야 한다는것은 고통-torment-이 었다. 그래서 *Ursula*에게 있어서 종교는 영광스런 연극의 세계- a glorious sort of playworld-, 즉 현실계와 동떨어진 우화와 신화 그리고 환상의 세계였는가 하면 그 환상의 세계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현재 생활에서 미루어 짐작컨데 빵을 5천 조각으로 5천명에게 베푼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며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까지 이른다.

전자의 세계를 "주일적 세계"-a weekday world of absolute truth and duties and reports-라 한다면 후자의 세계는 "일요일의 세상"-a sunday world of absolute truth and living mystery-(R,P.283)으로 지금 *Ursula*는 주일적 세계가 더 현실적이라는 이유로하여 일요일적 내심의 세계가 자신에게 강제해 오는 어떤 완강한 일요일적 자아도 부정해 간다. 그래서 *Ursula*는 드디어 주일적 생활을 배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며 문제가 되는 이 주일적 세계는 그녀로 하여금 영혼도 육체도 일반적인 지식으로 이해되는 주일세계의 가치를 추구하는모습으로 현실세계에 나오게 하고 있다. 그러나 양분된 주일적 세계와 일요일의 세계를 통해서 그녀는 오히려 더더욱 황당해 진다.

How to act, that was the question? Whither to go, how to become oneself? One was not oneself, one was merely a half-stated question. How to become oneself, how to know the question and answer of oneself, when one was merely an unfixed some- thing-nothing, blowing about likethe winds of heaven, undefined, unstated.(R,P. 284)

실천과 행동이 뒤따르는 현실적 생활을 통해서 주일적 세계를 내가 과연 어떻게 배울 수 있을것인가? *Ursula*는 일요일적인 환상의 세계를 어떻게 하든지 주일적 세계에서 얻으려 한다. 현시점에서 그녀의 생활이 모두가 주일적 세계의 생활이며 그녀가 가지려하고 기대고자 소망하는 것이 *Jesus*의 가슴에 있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에 있는 가슴이란 점이다. 그녀는 영적인 말을 빌어 제 자신의 육육을 방조함으로써 '마음으로는 영적 세

계와 물질적 세계를 혼동'하고 있으며 그것은 자기 타락이었고 '영혼의 부르심에 대해서 일상적인 욕정으로' 대답하는 세속적인 답변일 수 밖에 없다. *Jesus*에 대한 "감각적인 동경"-sensuous yearning(R,P.287)-에서 우러난 가슴 두근 거리는 응답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주일적 세계에서 은총과 위안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부터가 자신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한층 더 높은 고뇌에 흔들릴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되고만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일요일적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은 자신에게 드센 압박이 되고있는 것이다.

All the time she walked in a confused heat of religious yearning. She wanted *Jesus* to love her deliciously, to take her sensuous offering, to give her sensuous response. For weeks she went in a muse of enjoyment. And all the time she knew underneath that she was playing false, accepting the passion of *Jesus* for her own physical satisfaction. But she was in such a daze, such a tangle. How could she get free?  
(R,PP.287-8)

이같은 그女的 혼돈은 *Ursula*가 제자신의 '모든 것을 미워하고 모든 것을 저주했다'는 *Lawrence*의 말 그대로 그女는 목전의 것에 대한 필요와 만족의 외에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냉혹하고 무관심하며, 무감각해 지는 사춘기적 우유부단함의 전형적인 감정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Ursula*는 두개의 사랑에 빠진다. 그 하나가 학교교사-School mistress-인 *Winifred Inger*와의 사랑이고 다른 하나가 *Anton Skrebensky*(이하 *Anton*)와의 그것이다. 하찮은 단편적 지식에서조차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곤하던 이 시기에 *Ursula*의 감수성이 *Winifred Inger*와 자기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심적 움직임"-a queer awareness (R,P.336)-을 포착하게 되는 것이다. *Ursula*의 정신 연령으로는 완전히 깨닫기가 어려운 방향의 시기에 *Ursula*는 *Winifred*와의 애정을 통하여 새롭게 혼돈의 세계에 빠져들어 마침내 선생님과의 사념을 불태우는 소녀가



된다. *Winifred*는 lesbian이었다. 그리고 부인 운동가-women's movement(R.P.343)-이기도 했다. 그녀는 Newnham에서 공부를 마친 B.A.이었고 목사의 딸로서 가문좋은 집안의 규수였다. 그러나 Feminist로서의 *Winifred*가 행복했다는 표현은 없다. 이같은 상황전개에 대하여 *Carol Dix*는 이런 말을 한다:

철없는 소녀인 *Ursula*로 하여금 'Homosexual Love'에 빠지게하고 *Winifred*가 lesbian에다가 맹렬한 여성 운동가로 묘사된것은 *Ursula*가 자주성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부각시키는 대신에 *Winifred*의 행보가 당시로는 대중이 공감할 수 없는 정서였으리라는 조심스런 평가가 그것이다.

What makes Ursula even more unique, as a feminine character in literature, is that Lawrence in his attempt to show her as a fully independent-minded and very passionate young woman, gives her a teenage homosexual love for her teacher Wini-fred Inger.

Winifred Inger has angered feminist critics because Lawrence implies that she is not a happy woman; as though he were saying no lesbian could be happy. Lawrence may well have believed that. But then, also, it is not hard to imagine that even in the 1910s it was not easy to live as a lesbian and feel fully content.<sup>10)</sup>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Winifred*가 teenager인 *Ursula*의 정서에 전혀 부정적인 해악만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Winifred*는 어떤 면에서 *Ursula*로 하여금 여성으로서의 내심에 침잠해 있었던 아름다움에 대한 기본적인 자각을 키워줬는가 하면, 보다 완벽한 자아의 추구를 위한 독립된 자아의 발견에 수반되는 의욕을 정신적인 측면에서 고무했다 할수있다.

10. Carol Dix. Op.Cit. P.38.

Miss Inger. The latter was a rather beautiful woman of twenty-eight, a fearless-seeming clean type of modern girl whose very independence betrays her sorrow. She was clever, and expert in what she did, accurate, quick, commanding.....

But what Ursula adored so much was her fine, upright, athletic bearing and her indomitably proud nature. She was proud and free as a man, yet exquisite as a woman.(R,PP.336-337)

게다가 *Winifred*와 *Ursula*의 친밀감은 두 사람의 생활을 하나로 묶게 해주었고 마침내 *Winifred*는 "*Ursula*의 사상을 자기와 동일한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려 한다. 그런데 종교 즉 신에 대한 두사람의 입장에 있어 교의나 종교가 안고있는 위선을 혐오한다는 것(see R,PP.341-2)에는 둘다 뜻을 같이 했다. *Winifred*는 종교를 인간화-humanized-하고 있었다. 그리고 욕정이야 말로 "진리와 선의 표준"이라는 결론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Ursula*는 *Winifred*의 종교관에서 풍기는 여성으로서의 조심스런 복종심이나 숭배적 태도를 거부했다. *Ursula*의 입장은 남성으로부터 자유와 자긍심을 쟁취함으로써 이들로부터의 해방에 있었고 남성과 대등한 여성의 지위를 쟁취하는 수준의 사랑을 요구했다. 따라서 *Ursula*의 신은 "온순한 양도 아니고 평화스러운 비둘기도 아닌, 사자요 독수리"로 상징되고 이들의 위용과 당당함에서 보는 것과 같은 최대의 의구와 최대의 승리를 사랑한 것이다.

Her good was not mild and gentle, neither Lamb nor Dove.

He was the lion and the eagle. Not because the lion and the eagle had power, but because they were proud and strong; they were themselves they were not passive subjects of some shepherd, or pets of some loving woman sacrifices priest. She was weary to death of mild, passive lambs and monotonous doves. If the lamb might lie down with the lion, it would be a great honour to the lamb, but lion's powerful heart would

suffer no diminishing. She loved the dignity and self-possession of lions.

She did not see how lambs could love. Lambs could only be loved. They could only be afraid, and tremblingly submit to fear, and become sacrificial: or they could submit to love, and become beloveds. In both they were passive. Raging, destructive lovers, seeking the moment when fear is greatest, and triumph is greatest, the fear not greater than the triumph, the triumph not greater than the fear, these were no lambs nor doves. She stretched her own limbs like a lion or a wild horse, her heart was relentless in its desires. (R.P.342)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것은 *Ursula*에게 새로운 사상-lesbian flirtation/ women's movement-을 심어준 *Winifred*가 지니고 있는 이면의 성격이다. 그녀가 "과학교육을 받았다."-*Winifred* had had a scientific education. (R.P.341)-는 사실과는 관계없이 그녀가 유물론-science materialism-의 신봉자라는 점이다.

### III

*Ursula*의 입장에서 보면 *Winifred*의 자신에 대한 lesbian식의 육체적 요구와 같은 타락성은 신여성으로서의 자립정신이 강하고 영리하며 우아한 그녀의 모든 장점을 감퇴시키는 어두운 면인 것이다. *Lawrence*는 이러한 *Winifred*에게서 *Ursula*를 떼어 놓으려고 한다. 그래서 *Ursula*의 외숙 Tom-Colliery manager at Wiggiston-을 생각해 내고 *Tom*을 *Winifred*와 짝을 짓도록 한다. 그러니까 *Tom*도, *Tom*의 짝이되는 *Winifred*도 부분적이라기에는 정도가 심한 정신적 파탄자로 보아서 *Lawrence*는 이들의 결합을 Corruption의 pattern으로 완성해 버린다. *Tom*과 *Winifred*의 만남은 그래서 매우 졸속적이다. *Ursula*가 *Winifred*와 함께 *Tom*의 집에 도착했을때 *Winifred*를 보는 순간 *Tom*은 이女子에게서 자기 자신과 같은 "검은 부패"-dark corruption. (R.P.347)-를 의식하

게 된다. 그리고 *Winifred*는 그녀 나름대로 *Tom*을 보는 순간 정수리까지 벗겨진 대머리의 *Tom*에게 같은 족속이라는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탄광지의 축축하고 비참한 어둠과 사람들의 생기없는 슬픈 표정들, 이런 점을 개선코자하는 노력은 커녕 오히려 이곳 주민들이 탄광과 이 마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개조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와 생명이 탄갱이라는 괴물의 노예로 봉사하고 있다는 현실적 이유로 하여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그들이 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탄광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로 되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탄갱만이 진짜의 연극이오 존, 가정도, 이 지역에서는 인간이 누릴수 있는 여흥의 일부분일 뿐이며 인간과의 접촉에 있어서도 상대가 여자이든, 남자이든, 상관이 없다. 여자들이 서로의 남편을 바꾸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도덕적 무감각하며 민중의 도덕적 지표가 되는 공작님이 떼돈을 벌고 있는....(see.R,PP.347-8) 그래서 *Ursula*는 이런 사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하고 추악하며 쓰라린 것들임에 반하여 외숙은 거기서 일종의 잔인한 만족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 불만스럽다. 그러나 *Tom*은 이 무서운 사태를 알면서도 거기서 떨어져 나올 수 없는 현실성을 이해하는데 더 의존했다. 그래서 *Tom*은 자유롭고 순수한 그 나름의 유일한 행복을 기계에 봉사하고 있을 때이며 이 순간만이 무수한 비난 때문에 손상받은 자기혐오로 부터 스스로가 해방될 수있다고 믿는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Winifred*도 또한 다름이 없다. 그녀는 물질적/ 기계주의적인 불손한 추상을 숭배함으로써 인간적 감정의 번민과 타락에서 해방될 수있다는 점에서 *Tom*의 기계주의와 다름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 둘의 진정한 만남은 기계적인데 있다. 그리고 그들 둘은 기계였다.

His real mistress was the machine, and the real mistress of Winifred was the machine.

She too, Winifred, worshipped the impure abstraction, the mechanisms of matter. There, there, in the machine, in service of the machine, was she free from the clog and degradation of human feeling. There, in the monstrous mechanism that held

all matter, living or dead, in its service, did she achieve her consummation and her perfect unison, her immorality. (R.P.350)

*Ursula*는 이제 *Winifred*가 외숙의 애인이 돼 버린것을 확인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증식"-He wanted to propagate himself.(R.P. 352)-시키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는 *Tom*이라는 기계적인 인간뒤에는 동류의 교육이 있는 여인인 *Winifred*가 역시 기계적인 생활에 지배될 종속적인 삶을 이어갈 준비가 *Ursula*는 그녀의 사자와 독수리論에서 *Lambs*와 같은 수동성을 거부했듯이 *Winifred*의 운명론과 편향된 그녀의 기계론적 사고에 동의하지 않았다. *Winifred*의 그 당당하던 manliness, lesbianism, 그리고 feminism과 같은 것들도 마침내는 materialism속에 *Tom*과 함께 묻혀가 버린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외숙 *Tom*을 포함하여 스승 *Winifred*는 *Ursula*가 다짐해 왔던 이른바 독립심이 강한 여성-independent feminine-이고자 하는 그녀에게 있어서 결코 따를 수없는 실패의 이력이되는 것이다: 즉 Lawrence는 *Tom*과 함께 그녀의 인생을 증오와 경멸의 대상으로 평가되도록 narrative strategies를 펼쳐간 것이다.

*Ursula*가 남성의 세계에 뛰어들어 이를 정복해 보고자 결심했을때 그녀는 그녀가 규정한 모험의 대상에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었다.

그것은 남성의 세계가 신비의 세계-the mysterious world-라는 것이었고, 나날이 일과와 의무의 세계-the world of daily work and duty-이며, 바로 이런 세계에서 사회적 일꾼-a working member 아름답게 of the community-으로서의 자기 역할의 수행이 어떤것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탐색이기도 했다. 사실 *Ursula*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따라서 명확한 자아를 설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여성이기때문에 남성의 세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를위한 모험을 생각하는 가운데 잠시 자기성찰의 순간을 갖는 중에 *Ursula*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에있어서 축적된 어떤 비밀의 부-a secret rich-를 느끼며 여성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댓가를 항상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그녀는 언제나 자기자신에 대해 책임-a self responsible-을 질수 있는 인간이고자하고 완벽한 독립-complete independence-, 그것도 완전한 사회적 독립을 얻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Ursula*의 이 모든 일들은 Anton과 잠시 헤어진 후 사람들과의 접촉을 두려워해 오던 *Ursula*가 Winifred Inger선생을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었고 *Ursula*에게는 이런것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성숙을 위한 발전적 모델이 되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Winifred*를 통해서 *Ursula*는 그만큼 더 빨리 자아의 성숙을 키우는데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다.

*Ursula*와 Anton과의 만남 그리고 헤어짐, 그것을 열림-open-과 폐쇄-close-의 과정이라고 불렀을때 회망의 열림 과정은 예외없이 투쟁의 긴장된 국면과 이어져 있다.

*Ursula*가 Anton과 만났던 것은 그녀의 나이 16세가 되던 해로 되어있다. 종교적신심이 두터운 그녀는 종교적 열망속에도 세속적 동경에 눈을 돌리고 영적인 말을 빌어 감각적 응답을 기대하며 가슴두근거리하던 그런 시절이 있다. *Ursula*는 우선 Anton의 청년다운 음색과 침착한 태도에 주목했는가 하면, Anton은 예쁜 몸매에다 침울한 성격, 그리고 말수가 적은 그 여인을 금방 좋아하게 되어 그들 관계는 쉽게 가까워 진다.

Anton은 혈통상으로 볼때 *Ursula*의 할머니와 같은 Poland계의 핏줄을 이어받은 귀족 가문의 21세된 젊은이로 연수 150파운드를 받는 영국의 육군 공병대 소위였다. 이런 Anton을 *Ursula*는 Brangwen家の 여인들이 동경해 왔던 외부세계의 정기를 띤 그 어떤 강렬한 공기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눈앞에 전개되는 드넓은 세계를 막연하나마 느껴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Ursula*는 Anton의 군인다운 단도직입적 태도에서 생명력을 느끼고 그의 건강한 육체-physical constitution-에서 숙명적 매력을 포착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Anton이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도 용납하지 않는 독자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사실을 평가하고는 그를 신사로 규정해 두고있다.

더 나아가 *Ursula*는 '인간의 딸들을 아름답게 본 신의 아들 중 한 사람

'-one such as those sons of God who saw the daughters of men, that they were fair.(R.P.292)-쯤으로 보았다. *Anton*은 *Ursula*의 자기 판단에 의해서 돌연 그녀의 폭풍이 된것이다. 그래서 *Ursula*에게 있어서 *Anton*은 움직일 수없는 That's him이 된다.

회전 목마위에 앉은 그들은 자신들이 대중을 조소하며 하늘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까지도 한다. 그들은 이제 시장과, 교회와,결었던 *Cossethay*의 언덕길을 걸으면서 차츰 자기를 내세우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마침내 상대에게 자신을 내보이며 자아를 키워가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Ursula*와 *Anton*의 관계를 (*Anton*의 *Ursula*에 대한 kiss를 빌어 그것이 *Ursula*에게는 '빛의 호흡'처럼 알뜰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Lawrence*는 마치 신비의 영역으로 이끌려 나가려는 듯 서술하고 있다. 그들 둘은 Hemlock stone이 있는 언덕을 지나간다. 그곳은 마법의 나라-magic land-에 비견되는 곳으로 두사람이 현대문명의 이기(利器)인 자동차를 타고 바로 그 마법의 나라를 스쳐 지나가면서 낮익은 풍경을 보게하는 것이다. 그러나 *Lawrence*는 그들로 하여금 평소의 자아를 벗어 버리고 마법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다는 그들의 희망을 그들 둘의 고통스런 바람으로 남겨놓고 있을 뿐이다.

#### IV

*Anton*이 *Fred Brangwen*의 결혼을 축하하기위하여 *Marsh*에 다시 왔을때까지도 *Ursula*의 *Anton*에 대한 생각은 그이가 자신에게 있어서 이해를 초월하는 청년이었고 자신의 운명이어서 여전히 *Ursula*의 잔에는 미주-bright wine-가 그득하였고 magic land에서 찾을 수 있는 꿈속에는 여전히 *Anton*만이 전부였다. 그러나 소설은 '탄갱의 혼잡한 잡음과 꺼멓게 거울린 도시의 중압감'과 같은 침울한 분위기에다 '말굽을 박는 법'이라거나 '도살용 소를 끌라내는 법을 배운다'는 등의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가 터져나오다가 급기야는 군인의 속성에 대한 원천적인 논의에 와서는 이들 두 사람이 갖는 가치관때문에 *Anton*은 망연한 소원감에 빠지고 만다.

Ursula는 Anton의 개성없는 종속관-I belong to the nation and must do my duty by the nation. (R,P.311)-에 찬성할 수 없다. 그래서 'You seem like nothing to me.'(R,P.311)이라고 저항하면서 맹렬한 거부감을 펴보인다.

'Nothing. I would be in readiness fo I eeded.' The answer came in exasperation. 'It seems to me,' she answered, 'as if you weren't anybody as if there weren't anybody there, where you are. Are you anybody, really? You seem like nothing to me.'(R,P.311)

Ursula와 Anton의 이같은 긴장은 필연적으로 이들 관계의 Consummation에 이르는 충동과 관련을 맺고있다. 그런 시각에서 볼때 Lawrence는 Ursula와 관계를 맺고 있는 Anton이 현대문명을 대표하는 기계적인 일면을 지니고 있어서 생에대한 충동력이 숙명적으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그와 대조되는 동물적이고 비문명적인 Annabel호의 bargeman에게서는 살아가는 인간의 순수함(gentle)과 울동미가 넘치는 생명력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다.

(see R,PP.312-3)

Anton은 Ursula를 욕구하는 bargeman의 무지한 솔직성과 숭배하는 태도에서 육체의 욕구를 회구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는 지금껏 Ursula의 여성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Ursula가 베푸는 감정에만 쌓여온 것이다. 춤이 시작됐을때만 해도 달빛에 노출된 Ursula는 Anton이 가해오는 맹목적인 압박보다는 청량한 자기만의 자유를 갖고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춤은 Ursula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다림이었다. 표면적인 자아와 내면적인 자아라는 존재 사이에있는 벽과 같은 것이다. 이벽을 헐어내기 위한 Anton의 의지는 달만큼이나 멀리 그의 손에 닿지 못할 거리에 Ursula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달의 출현 그것은 Ursula의 내면을 차갑게 식혀주는 장치이기도 하고 그녀의 열정을 부추켜 주기도하여 그녀의 자아를 자랑스럽고도 충직하게 지탱해 주기도하는 보호막(수단)이 되기도한다.



*Anton*과 *Ursula*간의 유희가 끝났을때 여자의 영혼은 승리로 결정되어 있었고 남자의 영혼은 고통으로 해체되어 버렸다. 여자의 포악함과 맹렬함앞에서 *Anton*의 지주는 맥없이 무너져 내렸으며 핵심이 사라져 버린 *Anton*은 이제 더 이상 *Ursula*를 사랑할 수 있는 남자는 아니었다. *Anton*의 당당했던 자부심도 *Ursula*앞에서 함께 무너져 내렸다. *Anton* 그는 "최대 다수의 선이야 말로 곧 개인에 대해서도 최고의 선"(R.P.328)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사회에서의 최고의 선이 평범한 개개인에게도 그대로 최고의 선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Ursula*가 *Anton*을 버린것은 아니다. *Anton*이 자신을 소유할 수없다는 것을 잘 아는 *Ursula*는 *Anton*에게서 다만 일상적인 공허를 메우기위한 애정과 호의를 기대할 뿐, 이미 황홀의 애무를 주고 받을 상대가 아님을 자각하는 것이다. *Anton*이 Boar전투에 참가하게 됨으로서 *Ursula*와 *Anton*의 관계에는 잠시 단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에 *Ursula*는 University college, Nottingham의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Anton*과 *Ursula*의 재회는 6年만이었다. *Anton*은 대위가 되어있었고 *Ursula*는 22세의 숙녀로 성장해 있었다.

*Ursula*에게 있어서 *Anton*과 자기의 사연이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있던 시절은 그녀가 소녀시절의 방황에서부터 나와 자신의 장래를 열어 가기위한 자각의 시간이 된다. *Ursula*가 대학에 들어 오게된것도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신생활에의 꿈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부였던 것이다. 여기서 그녀가 소녀시절의 생활에서 일과 기계적 사고의 신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낯선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중에서 몇가지 중요대목을 보기로 한다. 사실 그녀는 대학에 오기전에 이미 현대여성이 직면하리라고 예견되는 수많은 난관과 마주치게 된다.

남성과 대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쟁취는 물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독립이 필수라는 것도 알았다. 어머니의 다산을 생각하면 젊은 꿈이 다 깨질것같은 답답함때문에 집을 나와 자립할 생각도 하게되고 *Ursula*는 그것을 자기 해방을 위한 단호한 힘의 과시로 생각한다.

결국 그녀가 아버지의 주선으로 Ilkeston에 있는 Brinsley street school에 취업하는 계기가 되고, 여기서 알게된 *miss Maggie Schofield*(이

하 Maggie)의 덕분에 신세계로 이르는 새로운 사상에 눈을뜨게 된다.

Maggie는 feminist인 동시에 vegetarian이었다. 그녀는 또한 열렬한 부인 참정권론자였다. Ursula가 이런 동료로부터 새로운 가치관에 눈 뜬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Lawrence는 이들의 노력이 "원체 욕망은 많은데다 이겨내야 할 난간도 원체 컸다."라고 말함으로써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들의 투쟁이 꽤 무모했음을 비치고 있기도하다. 게다가- But having more freedom she only became profoundly aware of the "big want"(R.P.401)-라고하여 Lawrence는 Ursula가 추구해야 할 더 중요한 목표는 Maggie가 심취해있는 Feminism의 차원이 아닌 'big want'의 인식에 포함된 자아 발견을 위한 신세계로 지향돼야 한다는 암묵적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과연 Ursula는 여전히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서 자신만의 감각에 만족은 아니다.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렵고도 고통스런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다. 그녀는 Anton과 잠시 헤어져 있는동안 젊음이 갖는 낭만적인 꿈때문에 Winifred에게로 흘러갔던 부끄러운 추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nton을 사랑하고 있음을 Maggie의 오빠인 Anthony의 구혼을 통해서 은밀히 마음속에 기약하고 있는 것이다.

St. philip's school에서의 학교 생활은 신질서의 사상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다. 낡은 세계의 장막을 걷고 자기만의 신세계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택한 교두보가 학교였던것이다.

Ursula는 학교라는 체제속에 적응해 가고있는 자신이 자신을 되돌아볼 때, 그녀는 과연 자신이 비난해 온 Anton의 자아와 군인이라는 Anton의 별개의 자아, 그것들을 부정할 입장에 자신이 과연 놓여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녀는 문교부-Board of Education-라는 말을 음미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맡고있는 책임과 별개의 자아를 생각해 보고는 학급을 경영해 나갈 능력의 부재를 통감하는 것이다.

Harby 교장은 자신의 훈육체계가 말로 학교내에서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것 이었다.

그런데 *Ursula*로서는 학생을 기계적으로 조직화하고 반진체를 복종의 집단으로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단편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훈련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려는 의도는 본래의 *Ursula*에게는 있지도 않은 속성이었으므로 교장으로서는 자신의 훈육 체계가 *Ursula*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아서 *Ursula*는 교장이 타도해야 할 대상이 되고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체계에 종속되어 이를 생명처럼 고수하려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새롭게 경험하는 기계적 사고의 신생활권에서 자신의 설자리를 확보코자하는 상황에서 *Ursula/Harby*가 펼쳐보이는 공방을 통해 *Lawrence*는 학교라는 사회의 속도속에서 grotesque한 이 두사람이 갖는 특징적인 자아의 투쟁을 *Ursula*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Ursula*는 마침내 두 해동안의 학교 생활을 끝낸다.

## V

대학이 *Ursula*의 희망이 된것도 "일의 세계"에 등을 겪지않아도 자신의 내부적 갈망을 충분히 펼쳐나갈수 있는 재도약의 거점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Ursula*의 초기 대학생활은 "전투같은 생활이요 세상과는 멀리 떨어진 평화"였다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대학에 대한 매혹은 차츰 사라져 갔다. 기계적 공부에 대한 타성에 반발한 것이다. 대학의 교수는 지식의 거간꾼-middle-men-이고 대학은 "공장을 위한 소실험실"이며 학생은 이를위한 "견습공"이라는 것이 *Ursula*의 평가였다.

그래도 대학에서의 학문적 관심의 대상은 있었다. 생명의 신비, 그 원천에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식물학이며 그녀에게 있어서 그것만이 산 학문이었다. 그이유로서 *Ursula*는 인간세계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있는 그 무엇-a glimpse of something working entirely apart from the purpose of the human world.(R,P.436)-을 식물계에서 보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학문을 통한 *pisgah*로의 등정에는 사실상 실패한 그녀를 두고 *Lawrence*는 "국면 국면에 등장하는 *Ursula*가 각기 다른 양상을 띄고있지만 그래도 종시 *Ursula Brangwen*임에는 틀림없다".-In

every phase she was so different. Yet she was always *Ursula Brangwen*. (R.P.437)-라는 말을한다. 그것은 항상 도전과 반발로 시작했다가 마침내는 뒤돌아 누워버리고 말았던 *Ursula*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추구하는 자아의 실체인 생명력만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Anton에 대한 자기사랑이었다. *Ursula*는 신생명, 신현실-the new life, the reality(R.P.441)-로 닦아온 *Anton*을 생각했다. 그리고 현미경 앞에 누워있는 단세포가 구성하고 있는 여러힘의 결합을 생각하고 생명이 담고있는 특별한 질서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있다.

For what purpose were the incalculable physical and chemical activities nodalized in this shadowy, moving speck under her microscope? What was the will which nodalized them and creat-edthe one thing she saw? What was its intention? To be itself? Was its purpose just mechanic-al and limited to itself? It intended to be itself. But what self? Suddenly in her mind the world gleamed strangely, with an intense light, like the nucleus of the creature under the microscope. Suddenly she had passed away into an intensely-gleaming light of knowledge.

She could not understand what it all was. She only knew that it was not limited mechanical energy, nor mere purpose of self-preservation and self-assertion. It was a consummation, a being infinite. Self was a oness with the infinite.

To be oneself was a supreme, gleaming triumph of infinite. (R,P.441)

*Ursula*의 소망은 세포핵이 결합하려는 그 의지를 *Anton*과 함께 알고싶었던 것이다. 그것이 *Ursula*의 신세계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문턱에 *Anton*이 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추구하는 신세계로 동행할 '열쇠요 핵심이 되어줄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Ursula*는 *Anton*에게서 개인의 자발성이 상실되어버린, 기계화된 그의 태도에서 그만 어떤 보이지 않는 의지력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자아의 연출을 보는 듯한 기분을 *Anton*에게서 감지하는 것이다.

*Ursula*는 이러한 *Anton*에게서 “자아란 무한과 일체가 된다”-Self was a oneness with the infinite. (R,P.441)-라는 큰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으며, ‘자아의 실현이라고 함은 변칙이는 무한의 지고한 승리’-To be oneself was a supreme, gleaming triumph of infinity. (R, P.441)-라는 본래의 의지조차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Anton*에게서 *Ursula*가 자신의 살체속을 파고들 발광체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Ursula*는 자신의 “가려진 자아”-‘dark and unrevealed Self’-를 이렇게 말해 둔적이 있었다. 즉 그녀는 자신의 실체는 어디까지나 캄캄하게 숨어만 있고 끝내 표면에 나타낼 수 없었으면서도 그러나 인간의 완전한 의식-man’s completest consciousness. (R,P.437)-에 의해서만이 비로소 열려질수 있는 자신만의 세계라는 것이었다. 이같은 다짐으로 보아 *Ursula*앞에 지금 서있는 그가 *Ursula*만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천사’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Lawrence*는 *Ursula*의 입을 빌어 그들 관계의 정황을 “자기들은 휴전 상태속에서 만난 원수임을 알았다-enemies comes together in a truce. (R,P.442)-라는 말로 서로 서로 딴 세계의 사람이 되어있는 자아의 부조화를 설명해 두고 있음을 본다. 그것은 그들 관계의 변화에 대한 예고적 성격을 지니는 또하나의 narra-tive strategy인 것이다.

*Anton*이 *Ursula*의 심기를 건드려 놓은 것이 India로 가려는 그의 계획에 대한 *Ursula*의 단순한 거부감일 것이라는 심정적 추론은 가능하다. 그러나 *Anton*의 이같은 계획에 저항하는 *Ursula*의 거부의 목소리, 그것은 *Ursula*라는 독립적 자아에서 비롯되는 영혼의 반발과도 같은 것이다.

쇠같은 강경함-Iron rigidity-과 주철제-forged metal-와같은 인간에게서 지배되는 사회, 하찮은 문명에 길들여진 지배자가 찬란한 문명의 주인앞에서 군림하는 꼴을 본다는 것은 *Ursula*가 가야할 길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였다.

'Have you an appointment in India?' she asked.

'Yes - I have just the six months' leave.'

'Will you like being out there?'

'I think so - there's a good deal of social life, and plenty going on - hunting, polo - and always a good horse - and plenty of work, any amount of work.'

He was always side-tracking, always side-tracking his own soul. She could see him so well out there, in India - one of the governing class, superimposed upon an old civilization, lord and master of a clumsier civilization, than his own. It was his choice. He would become again an aristocrat, invested with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having a great helpless populace beneath him. One of the ruling class, his whole being would be given over to the fulfilling and the executing of the better ideal of the state. And in India, there would be real work to do. The country did need the civilization which he himself represented: it did need his roads and bridges, and the enlightenment of which he was part. He would go to India. (R, PP.443-4)

깊고 낮은 영혼이라거나 선과 악의 차원을 떠나서 그들은 서로가 사랑 하는 애인들이다. 그리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도 서로가 알고 있으며 또 그렇게 서로의 매혹에 갇혀 가고 있다. Anton이 Africa에서 경험한 풍부한 어둠의 감정이 Ursula의 살아있는 암흑의 감정으로 긴장되고 서로는 망아의 창조적 원천으로 빠져간다. Lawrence는 이를 일러 풍요한 암흑속의 핵-the nucleolating of the fecund darkness. (R,P.447)-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대학은 Ursula에게 있어서 자기의 내부생활을 은폐하기 위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다. Ursula는 Anton에게서 잠시동안의 'vital self'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Anton에게서 그녀가 탐색해 왔던 미지의 'sexual passion' 그것이였다.

두사람의 love-making이 body vs. spirit의 융합을 실현했다고 생각

했을때 *Ursula*의 정신은 자연과 고요와 희망찬 대지에 있었지만 그녀가 추구하는 sexual mate는 하늘의 별이었지 *Anton*이 아님을 깨닫는다. 물론 *Anton*도 그녀의 옆에서 함께 달리고 있었지만 말이다.

*Ursula*가 욕구하는 'vital self', 그것은 *Anton*의 입장에서 보면 공포였다. *Anton*은 *Ursula*에 대략 자신의 입지를 깨달았다. 그는 잔인한 무력감에 빠진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다.

He was there, but only on sufferance. He was a screen for her fear.

He served her. (R,P.465)

*Anton*의 자각못지 않게 *Ursula* 또한 *Anton*과는 회복할 수없는 틈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Ursula*가 판단하기로는 비록 그가 남자로서 완성된 듯 싶었지만 'Ursula's man'은 아니라는 판단이 서 있었던 것이다.

He seemed completed now. He roused no fruitful fecundity in her.

He seemed added up, finished. She knew him all round, not on any side did he lead into the unknown. Poignant, almost passionate appreciation she felt for him, but none of the dreadful wonder, none of the rich fear, the connexion with the unknown, or the reverence of love. (R,PP.473-4)

그런데 그들이 매듭지어야 할 현실적인 골치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Anton*이 India로 떠나는 문제와 결부된 *Ursula* 자신의 분명한 거취가 조바심을 내게하는 선택의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It was for her to choose between being Mrs Skrebensky, even Baroness Skrebensky, wife of a lieutenant in the Royal Engineers, the Sappers, as he called them, living with the

European population in India - or being Ursula Brangwen, spinster, school-mistress. She was qualified by her Intermediate Arts examination. She would probably even now get a post quit easily as assistant in one of the higher grade schools, or even in Willey Green School. Which was she to do? (R.P.474)

*Ursula*와 *Anton*은 그들 관계의 모든 것-She knew him all round. (R.P.473).....We have had the flower of each other.(R.P.475)-을 알아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orothy*가 *Ursula*더러 '*Anton*에게서 얻지 못한 다른 것을 쫓고있다'는 평가를 내리기까지 그들은 그들 관계의 결정을 미루어왔다.

그러나 마침내 Lincoln Coast에서 경험한 그들의 Consummation은 매우 상반된 감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이미 Rouen(see.R, P.456)의 사원에서 감지된 상호간의 느낌 그대로의 결과였다. *Ursula*는 그녀가 기대하는 생의 충족속에서 *Anton*에 대한 잔영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Anton*은 역시 달빛속의 그녀 앞에서 이미 "죽어있는 자기의 육체에 칼이 꽂혀 들어오는" 잠재된 공포를 의식하는 것이다.

*Ursula*도 실패했고 *Anton*역시도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Anton*은 *Ursula*로 부터의 해방을 차라리 상쾌한 위안으로 받아들이고 대령의 딸과함께 인도로 가버림으로써 *Ursula*를 떠났다. 그러나 *Ursula*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이 남아있었다. *Anton*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그녀는 *Anton*과의 생활에서 자신이 바라는 충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평소 그렇게도 경멸해 왔던 어머니 *Anna*의 생활 태도를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려드는 심정적 변화속에 결국 자신도 어머니와 다름없는 여자가 되는것으로 자기 인생은 충분하다고 생각도 해본다. 그런데 결국 혼수상태에서도 *Ursula*가 선택한 것은 독립된 자아의 보존에 있었다. 그리고 그 자아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 신념의 영구성을 강바닥의 돌과 같은 것으로 비유했다.

She was in some way like the stone at the bottom of the



river, inviolable and unalterable, no matter what storm raged in her body. Her soul lay still and permanent, full of pain, but itself for ever. Under all her illness, persisted a deep, unalterable knowledge. (R,P.491)

*Anton*으로 인한 현실적 고통은 그녀에게 있어서 독립된 자아를 더 소중히 하려는 반발로 나타난다. *Anton*이란 존재는 자신의 욕정속에서 일시적으로만 존재한 자신의 피조물일 뿐이며 따라서 *Anton*은 자신에게 있어서 과거에 속한 인물일 뿐이므로 *Anton*의 세계에 묶여서 내가 고통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Ursula*는 그녀가 가야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길은 그러나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자아의 쟁취를 위해서는 구각-I must break out of it, like a nut from its shell which is an unreality. (R,P.493)-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의지만을 확고히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녀가 새로운 실재의식 속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 *Ursula*의 유일한 실체(nut)인 싹은 이미 새 흙에 뿌리를 내려 성장을 시작할 준비를 마치고 있음을 본다. 그위에 무지개는 떠 있고 발아를 위한 또 한 고비를 위해 "또 한편의 책이 요구"<sup>11)</sup> 되게 된다.

## VI

*Ursula*와 *Anton*의 관계는 결혼에 의한 소유의 의지가 그들 관계의 중심적인 과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그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제 3세대의 (*Ursula*와 *Anton*의) 세계는 1대와 2대에서 발견되는 자아와 자아의 만족스런 결합이나 자아와 반자아와의 결합에 의한 화해의 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균형의 묘를 통한 혈적교환-blood intimacy-을 획득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경우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Ursula*가 시도한 이른바 현실 참여에 의한 자아 추구에 있었다고 하겠다. 이것은 곧 그녀의 내심에 불붙고 있는 기본적인 자아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녀는 *Anton*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기존재의 말살-nullity-을 수용하는 태도

11. Anthony Beal. Op.Cit. 1964. P.39.

를 취함으로써 가장 소중히한 자신의 생명력-vitality-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라 할수 없겠다. 그이유는 *Ursula* 스스로가 *Anton*과의 관계를 한때의 'Conventional Self'쯤으로 보아 자신의 기억에서 *Anton*을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Lawrence*는 *Ursula*의 지금을 이렇게 썼다.

She was the naked, clear kernel thrusting forth the clear, powerful shoot, and the world was a bygone winter, discarded, her mother and father and Anton, and college and all her friends, all cast off like a year that has gone by, whilst the kernel was free and naked and striving to take new root, to create new knowledge of Eternity in the flux of Time. And the kernel was the only reality; the rest was cast off into oblivion. (R.P.493)

이 글이 나타내 주고 있는 'narrative image'는 자발적 자아 'Spontaneous Self'를 회생시키려는 *Ursula*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다. 말-horse-과의 조우에서 보는 것과 같은 충격에서 벗어나 *Ursula*가 쟁취코자하는 도전적 의욕은, 따라서 다시 한번 어둠과 미지- darkness/unknown-의 세계를 향해 성숙의 체험을 넓혀가려는 자기 변신의 노력이며 고통으로부터 본래의 자아로 복귀한 *Ursula*의 참모습이라 해야겠다. 그녀는 그녀가 살아가는 당대의 모든 영역에 대한 가치 의식을 시험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무한대의 탐색의욕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결국 어떤 특정의 것을 소유하겠다는 단순한 의도였다고 보다는 'Lawrentian self'<sup>12)</sup>의 'Unknown'에 대한 感을 시들지 않도록 유지하려는 끈질긴 자기 자세의 추구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Lawrentian self'인 *Ursula*는 바로 그 감각을 풍요롭게 유지하는 일이 그녀가 개발해 가고자하는 의욕의 중핵이 되어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자아성숙을 위한 자신의 도덕률을 세련해가는 하나의 노력이었다. 이를위해 *Lawrence*는

12. Calvin Bedient. Architects of the Self. 1972. Chapter v, The vital self.

*Ursula*로 하여금 완벽한 해체와 재생을 되풀이하여 반복시키는 기이한 활동을 시킬수 밖에 없었다 하겠다. 그리하여 *Ursula*가 취한 action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 욕구를 탐색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했다. Lawrence는 스스로 *Ursula*를 통한 이같은 노력을 일러 "I'm sure of this now, the novel. It is a big and beautiful work."<sup>13)</sup>라는 말로 확신에 찬 자평을 하고있는 것이다.

무지개는 'Brangwen blood'에 맺혀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약<sup>14)</sup> - some sort of hope for the future-과도 같은 것이며, 그것은 바로 *Ursula*의 희망이고 Lawrence의 자아라고 할 것이다.

Mark Spilka는 이같은 'Lawrentian Self'의 화신인 *Ursula*를 일러 At the end of *The Rainbow* a woman is born.<sup>15)</sup> 이라 하였다. *The Rainbow*의 말미에 태어난 그 여인은 Lawrence 자신이 험난한 자아 성장의 실험을 거쳐 어렵게 완성해 놓은 자신의 반(半)쪽 화신이었다. 이제는 혈적 교환의 완수를 위한 무지개의 다른 한쪽 끝에 설 한 남자를 찾는 일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 
13. Harry T Moore. The collected letters of D.H.Lawrence.I, London, Heinemann. 1962. P.272
14. Draper. D.H.Lawrence. Mcmillan Press. 1976. P.75
15. Mark Spilka. The Love ethnic of D.H.Lawrence. Indiana Univ. press. 1955. P.121

## References

1. Anthony Beal. D.H.Lawrence, Oliver and Boyd, Edinburgh and London, 1964.
2. Calvin Bedient. Architects of the Sel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3. Carol Dix. D.H.Lawrence And Women, London, Macmillan, 1980.
4. D.H.Lawrence. The Rainbow. The Penguin Books, 1987.
5. D.H.Lawrence. Fantasia of the Unconscious, London, 1986.
6. F.Glover Smith.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The Rainbow, Southampton, 1971.
7. Harry T Moore. The collected letters of D.H.Lawrence.I, London, Heinemann. 1962.
8. Howe, M. Beede. The art of D.H.Lawrence. Athens, Ohio. 1977.
9. Mark Spilka. The Love ethic of D.H.Lawrence. Indiana Univ. Press, 1955.
10. R.P.Draper. D.H.Lawrence. London, Macmillan, 1976.